



## 머리글

김도훈 라파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순교자 성월을 맞아!’

지난여름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독한 폭우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일터를 잃었습니다. 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우리는 초라해졌고 망연자실했으며, 오직 이 악몽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 재해는, 산을 뚫고 부수고 나무를 자르고 강을 막아 독을 쌓고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자연을 자본의 논리에 종속시켜 상품화시켰던 인류에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판단이었는지를 깨달으라는 하느님의 근엄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 구약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인류의 헛된 노력은 그치지 않았습다. 사람들은 더 가지려 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했으며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경우 하느님은 외면되었고 창조주의 섭리와 질서는 무시되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던 자리에 물신이 자리 잡으며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 본연의 지위를 스스로 파괴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닌 가진 자만을 위한 세상으로 세계를 질서 세웠습니다. 나아가 피조물은 처참히 이용의 대상으로만 전락했으며 창조 질서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어김없이 날이 참 좋은 9월, 교회력으로는 순교자 성월이 찾아왔습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면서 지키고자 했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다가 그것은 이 창조질서의 복원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텅텅이 한 줌 재로 없어지고 말 인간의 주제를 파악하고, 나아가 보다 겸손하게 나와 우리를 바라보며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가변적 하위 개념에 스스로 종속시키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 본연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순교자들은 목숨조차 당당히 내어놓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선조들 앞에서 지금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지, 행여 창조질서의 회복자로서가 아닌 창조질서의 파괴범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취사선택의 문제로 치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급할 때는 하느님을 부르짖는 열렬한 신앙인이 되고 또 자신의 부와 명예의 획득을 위해서는 하느님과 반하는 행동을 스스로 행하며 입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우리 본연의 자아는 물신을 숭배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살 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서 찾는 것은 부질없는 신기루입니다.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야말로 우리는 우리 본연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 비참하거나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의 거룩한 품위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의 술한 거짓된 논리 속아 살기보다, 선조들이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신앙인으로 함께 살기를 희망해봅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8월 3일(월)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춤추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춤추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은 ‘미쳐 날뛰는 사람들을 없애버리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있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에 시멘트를 깔아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이다.”라며, “후원회원분들 역시 상대방의 춤을 보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음악을 함께 듣고 공감하며, 넘어지는 이들에게 손잡아주고 함께 아파하며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와 유상철 세례자 요한 신부 축일 축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축가는 생략되고 꽃다발과 떡케이크를 전달하였습니다. 현대일 신부와 유상철 신부는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지혜롭게 견뎌내자고 말했습니다. 죄인이 라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그들의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악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 미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 간담회 및 현장 멘토링 교육



8월 12일(수)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 간담회 및 현장 멘토링 교육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현대일 위원장 신부(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 센터장), 카리타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입주업체 대표, 프로보노(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코디네이터분들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현대일 신부는 “창업준비센터가 준비하는 공간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은 메꾸고, 바뀌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미흡하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든다. 누군가 나를 위해 힘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들과 프로보노 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업체별 사업보고와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이 창업준비센터 입주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함께하고 싶습니다

박미경 데레사\_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년원 봉사는 생각하지 못했던 저에게 예전 본당의 한 자매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소년원 봉사를 하자는 자매님의 제안에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마침 봉사하기를 원했던 저는 즐겁게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소년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과 친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해맑은 웃음을 통해 오히려 제가 위로받았고 사랑을 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봉사할 줄 알았지만, 인간관계에 지치고 사회에서의 다른 일들도 있다 보니 1년 만에 봉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만두기에는 아이들과의 1년이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었고,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기에 다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있을 곳은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7개월째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순간에 더 잘해주지 못한 순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조만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만나서 주님 안에서 서로 웃으며 함께 할 시간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디나와 스켄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디나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 준 막내딸입니다(창세 30, 21). 스켄은 가나안 땅에 있는 스켄 성읍의 족장 하모르의 아들입니다. 스켄은 목덜미, 혹은 어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나와 스켄의 일화는 창세기 34장에 걸쳐서 그려집니다. 스켄은 디나를 겁탈하고 사랑에 빠지며, 청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할례를 스켄 성읍들의 남자들이 모두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고작 두 사람 시메온과 레위가 성읍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이 이야기를 읽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 자체에서도 인과관계의 과장과 비약이 느껴지는 데다가 그 이후로도 야곱 집안이 스켄과 교류를 끊지 않는 것 「“스켄 근처에서 양 떼에게 풀을 뜯기고”(창세 37,13), “요셉의 유골을 스켄에” 묻고, 요셉 집안의 상속재산이 됩니다(여호 24,32)」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디나 밖에 없는데도 스켄의 아버지 하모르는 “딸들”을 달라고 야곱에게 청하는 것을 보아서 이 일이 실제로 야곱의 집안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기 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간의 갈등 관계를 그리면서, 또한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잘못과 그 책임,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분노와 원한, 보복을 묵상하기 위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켄은 디나를 겁탈하는 죄를 짓지만, 디나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내로 얻어달라고 부탁하며, 아버지 하모르는 야곱에게 혼례를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은 정중하며, 호의적입니다. 스켄도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라고 합니다.

하모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스켄이 여러분의 따님에게 반해 있습니다.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와 인척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우리와 어울려 삽시다. 이 땅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 여기 사시면서 두루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스켄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지만 하십시오”(창세 34,8-12)

우리의 눈으로는 스캠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장면이 없고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이러한 성폭행이 있을 때는 혼인을 하거나 돈으로 물어주는 방법이 고대 이스라엘 법전에 나와 있는 유다인들의 해결방식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스캠은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화가 치밀어 있었다”(창세 34,7). 그들은 혼례의 조건으로 스캠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스캠의 남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흘 뒤,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메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캠도 칼로 쳐 죽이고, 스캠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창세 34,25).

시메온과 레위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략을 써서 폭력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 그 집안은 “몰살” 위기(창세 34,30)를 당하게 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시메온과 레위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창세 49,7).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창세 34,31).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집안에서 자신에게 청혼한 남자가 자신의 오빠들의 칼에 의해 죽는 모습을 보는 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이후 디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보면, 시메온과 레위가 진심으로 디나를 위해서 이 참혹한 복수극을 했다고보다는 자신의 화풀이를 위한 행동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고, 디나를 위해서 복수를 했다고 그렇게 다들 디나를 위한다고 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디나의 목소리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누구도 디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과 행동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내 안에 분노, 화가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집착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내가 우리 가족들, 약자들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계획과 행동들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는 있는지 말입니다.



## 제게 손을 내밀어준 건 기쁨과희망은행이었습니다

20기 창업 대출자 고OO

현대일 위원장 신부님 외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거둬되는 장마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함께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을 살아가도록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도와주시는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신부님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저는 2018년도 지인의 소개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지금까지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소규모의 면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사회적으로 3번 연속 겹쳐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포기과 인내의 갈등도 겪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하는 사업은 외식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현실에 민감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2019년도엔 매출은 창업 초기인 2018년도의 3분의 1수준에 이어서 올해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보다 매출이 더 하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아무도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이 없었던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지원되는 사업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장 임대계약도 7월에 만료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건 기쁨과희망은행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맙기도 하고 의아했으며 당황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일어서보자고 마음을 다잡고서 경영개선자금을 받아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많은 와중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꼬박꼬박 창업자금 지원금을 갚았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짜 대출금,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란 생각이 아닌 내게 도움을 준 기쁨과희망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며 그 회수된 돈이 또 다른 이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돈이라고 생각하며 꼭 갚아야 할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힘들지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쁨과희망은행이 있어 희망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현대일 신부님 이하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분에게 희망과 좋은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께.

새벽녘에 몸살이 난것 같은 몸상태에 뒤척이다 아침을 맞이 했습니다. 밤새 내리다 그자기를 반복하는 빗소리가 들기 싫은 소음처럼 들렸고 끈적이는 불쾌함은 짜증을 부리게 했습니다. 취침등이 켜져 있어서 책이라도 읽으려면 더 불편하기에 차라리 누워 있는게 편하기에 고여같은 새벽을 보냈네요. 불편하고 짜증을 유발시켰던 원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 아무 감정이 남아있지 않네요. 뭔가에 심술이 났는데 원인은 더위 때문인가 생각중입니다. 선풍기를 틀었다면 편할았을텐데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른 원인도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코로나 19와 장맛비로 인한 요즘 건강히 잘 지내는지요.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이해못할 사건사고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저도 그런 행동보다 더 심하게 하고서 이곳에 들어왔는데도 "왜 저렇까" "미친놈"이라며 한숨도 쉬게 되네요. 저는 그대로인데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인과 다른나. 결론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홍보며 복할 수 있느냐에 반성을 하게 합니다. 가끔 죄인인 저를 망각하고 세상 즐거움을 얻은 모습으로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 자격이라는 생각이 들면 부끄러움에 몸서리 치는 ... 저는 아각도 틀에서 맴돌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아침 기도를 할 때 힘들었어요. 내 스스로에 대한 거로도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기도도 어색하고 아각도 주님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편하네요. 이런 생각들 금방 잊고 또 즐겁게 지냅니다. 선배들의 도움이 항상 감사하네요. 요즘 운동부족인지 배가 조금씩 나고 있어요. 음식 많이 맛있는 반찬 많이 달라고 해서 고령고 약지로 먹는 것도 있어서 몸무게가 최고를 찍었네요. 운동은(달리기) 9월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 신부님.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열려주세요. 신부님 건강과 보람 많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9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취소 안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9월 7일(월) 후원회원 월례미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없습니다. 비록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지만, 교정사목위원회 신부들이 언제나 후원회원님들을 기억하며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향으로 미사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 2020년 10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10월 월례미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0월 5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0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 영상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를 설립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2020년 50주년을 맞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7/14~8/1)

2020년 7월~8월에는 김선미, 김소자 수산나, 김순금 루갑다, 김영순, 김혜영 올리아, 김희자 소화데레사, 김희정 마리아고레피, 문선화 헬레나, 손미나, 양금주 다리아, 유은자 제노베파, 이영선 마리아, 이영수 클라라, 최정자 크리스티나, 김제노, 노하 상바로, 박갑용 요셉, 이성진 요셉, 조남기 베드로, 최용부 바오로, 최제훈 바르나뎬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경순, 남미숙 올리아나, 마옥순, 오영수 마리아, 최은순 사라뎬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카리타스창업준비센터 업체 소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별관에는 카리타스창업준비센터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중에 새터민이 술을 빚는 도가 업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하나도가 ● Tel: 043-882-4582 / 농협 351-1066-1823-83 김성희(하나도가) / 택배비 별도



**“농태기”소주(25%):**  
국내산 쌀로 만든 북한 서민주  
- 10병 이상 : 5,000원 / 병  
- 10병 미만 : 6,500원 / 병



**“엄마막걸리” (6%):**  
음성 쌀과 직접 기른  
천연초를 함유한 막걸리  
- 3,000원 / 병



**천연초 국수 선물세트:**  
몸에 좋은 천연초를 넣어 만든  
국수와 엿 선물 세트  
- 30,000원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